

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. 5. 31.(금)

## 한덕수 국무총리, 「부이 타잉 썬」 베트남 외교장관 접견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31일(금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공식방한(5.30.-6.1.)중인 「부이 타잉 썬(Bui Thanh Son)」 베트남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.
- 한 총리는 최근 「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」를 제반 분야에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 및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.
  - 썬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며, 지난 2년간 연이은 정상 상호방문 등 고위급의 활발한 교류가 한-베 관계 발전의 강한 추진력이 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. 또한,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민방문 계기 합의된 「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 양국 외교부 간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고 했다.
- 양측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호혜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.
  - 한 총리는 베트남 내 우리 진출기업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, 썬 장관은 한국 기업 활동 지원에 대한 사안을 계속 잘 살피겠다고 했다.
- 아울러, 한 총리는 활발한 인적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, 상대국에 체류, 거주하는 양국 국민들의 안전, 보호, 편익 증진을 위한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.

- 한 총리는 베트남이 그간 한-아세안 대화조정국(간사 역할)으로서 역내 평화, 안정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,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.
- 또한, 한 총리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관련, 북한에 대해 아세안이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베트남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팀 장 김진환	044-200-2136
	외교안보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 박동현	044-200-2133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